

## 근대 동북아해역의 인문네트워크: 국학으로서의 중국학\*

서 광 덕\*\*

### 〈목 차〉

I. 서론	V. 1920년대 중국의 국고보존운동
II. 국학 형성의 두 가지 패러다임	VI. 결론
III. 국학 형성에 나타난 인문네트워크적 계기 1-일본의 동양학	참고문헌
IV. 국학 형성에 나타난 인문네트워크적 계기 2-일본의 국수보존주의	<Abstract>

### 〈국문요약〉

이 글은 중국이 지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전세계에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가운데 중국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는지를 ‘국학’이란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1990년대 후반 ‘국학’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의 연구자들은 학문 영역으로서 국학의 해석은 두 가지 패러다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토착주의와 세계주의 패러다임이다. 다시 말해 근대 백 여 년의 역사에서 국학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반복해서 이 두 패러다임으로 작동해왔다는 말이다. 토착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패러다임은 장타이엔(章太炎)으로 대표되는 만청과 공화정부 초기의 학문이고, 후자는 오사신문화운동의 산물로서 후스(胡適)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이 ‘국학’의 형성과정에 동북아해역의 인문네트워크적 계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중국에서 ‘국학’은 서학에 대한 대응학문으로서 또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에 필요한 기초학문으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성립되는 과정에 메이지 일본의 국수보존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또 실제적인 연구에서도 일본 동양학의 성과가 수용되기도 했다. 그 결과 중국의 ‘국학’은 일본의 지나학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 국가의 고유한 것만을 추구한다는 ‘국학’은 사실은 하나의 운동이며, 또 폐쇄적인 공간에서 탄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국학, 한학(漢學), 후스, 장타이엔, 량치차오, 유학(儒學), 일본 동양학, 루쉰, 인문네트워크

## I. 서론

21세기 들어 지구상에 등장하는 뉴스들 가운데 특히 중국 관련 기사는 전지구인들의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문화 및 스포츠 방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중국 졸부들의 기행과 같은 가십거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이 문제다.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이 바로 이 일반적인 관심의 절대적인 이유겠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에 대한 해석 역시 세계의 지식계에 던져진 화두인 점에서 문제적이다. “중국이 변화하면 세계가 변화한다”(미조구치 유조)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중국의 성장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 중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든 절망적이든 중국의 변화를 둘러싼 세계 지식인들이 내놓은 분석과 처방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른바 ‘위협론’에서 ‘거품론’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고, 또 그러한 진단에 대한 근거 역시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중국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또 어떤 이는 중국 사회주의를 새롭게 분석하며, 또 어떤 이는 중국의 고유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각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중국학’의 전성시대다.

중국학이란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앎(학문)인데, 여기서 중국을 대상으로 두고 누가 알려고 하는가 하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연구 주체에 의해 그 대상에 대한 연구의 시각과 방법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고스란히 그 주체(지역)의 중국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주체(지역)에 성립된 중국학 역시 그 주체(지역)의 시대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체(지

역)에 중국학의 역사가 형성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진단과 평가 역시 이러한 각 주체(지역)의 중국학에 기반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각 지역 중국학의 역사는 결국 주체와 타자의 관계 곧 연구 주체의 요구에 의해 그 대상(타자)가 규정되어온 결과이고, 아울러 그것이 그 지역의 새로운 중국학의 출발점이 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일찍이 중국학이 태동한 유럽에서는 시놀로지(Sinology) 즉 고전문헌의 해석에 바탕을 둔 인문학적 중국학이 발달하였다면, 20세기 들어와 미국에서 출발한 중국학은 지역학(Chinese Studies)이라는 이름의 사회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발전하였고, 현재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에 기반한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대세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놀로지의 중국학 역시 보편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 등 중국의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더욱 이러한 중국학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학은 주체(지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자)국학으로서의 중국학과 외국학으로서의 중국학이다. (자)국학으로서의 중국학이 중국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의해 수립된 학문이라고 한다면, 외국학으로서의 중국학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비(非)중국 지역에서 성립된 학문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중국학은 각각 독자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자)국학으로서의 중국학이 결국 근대 이후 외래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구를 비롯한 비중국 지역의 중국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중국의 중국학 역시 근대 시기 타자에 대한 앎의 추구과정에서 탄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특히 유럽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애초부터 관심을 가졌던 명청(明清) 시기의 중국이 잠시 서구 열강의 침략 대상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명청 시기의 위용을 갖추게 된 현재의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 근대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의 변화 역시 그들이 처음 중국을 접했던 명청 시기의 중국에서 다시 이 성장의 원인을 발견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이 지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전세계에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가운데 중국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는지를 ‘국학’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국학’의 형성과정에 동북아해역의 인문네트워크적 계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중)국학이란 단지 폐쇄적인 공간에서 탄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Ⅱ. 국학 형성의 두 가지 패러다임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국학열(國學熱)’이라는 이름의 학문적 붐이 일어났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 합동의 운동적 성격을 띠고 시작되었는데, 가깝게는 1949년 이후 멀게는 1910년대 오사신문화운동이후의 이른바 전통학문(문화)이 대체로 철지난 과거의 산물로서 부정과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특히 문화대혁명을 상기한다면 20세기 이후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대접은 대단한 반전인 셈이다.

‘국학열’의 흥기는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첫째, 정부의 입장에서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부의 편중에 따른 지역과 계층 및 민족 간의 소득적 격차가 낳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념의 필요 둘째, 민간의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대한 숭배와 외래문화의 수용에 따른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대안으로 셋째, 경제성장에 기반한 중국의 대국화의 필요에 따라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할 수 있는 문화적 대상(상징)의 필요 넷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자원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른바 국학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차원에서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와 관련하여 20세기 후반 중국의 ‘국학열’에는 신중화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는 19세기 후반 과분(瓜分)의 위기에 놓인 중국에서

국학이 탄생된 배경과 연관이 깊은데,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의 부상이란 배경이 다를 뿐이다. 즉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우수성과 그 문화의 위대함을 선양하려는 의도를 한켠에 담고서 추구되는 ‘국학열’은 다분히 중국 정부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전히 전통적인 화이론(華夷論)과 중화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도 부정할 수 없고, 아울러 중국문화의 위대함을 ‘국수(國粹)’라는 데서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려는 시도 또한 없지 않다.

여기서 ‘국수’는 현재 중국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처지에서 제기된 19세기말의 청왕조 시기에 제창된 용어로서, 근대 중국의 국학은 바로 ‘국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제창된 국수나 국학은 방어적인 개념으로 등장했다. 서구라는 강자에 의해 약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상을 탐구하여 자기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학이 단지 ‘중학(中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통적인 학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학의 성립과정에는 소위 요즘 학계에서 유행하는 ‘언어횡단적 실천(translingual practice)’ 또는 ‘통(通)국가적 유통’이 시도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국수’ 또는 ‘국학’의 주장이 처음 대두되고 또 근대적인 학문체제의 수립과 함께 변화되는 과정에는 이국(異國) 또는 이(異)문화와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19세기말 중국의 지식인들이 국수를 제창한 것은 메이지 일본의 국수주의 주장에 촉발받은 것이며, 이후의 국학의 성립과정에도 일본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중국에서 ‘국학’은 서구라는 실체가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국학은 서구 근대성의 헤게모니적 환경 하에서의 민족주의에 의해 생겨난 모순들에 대한 여러 반응들 중의 하나이며,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중국사학자 아리프 딜릭의 표현대로 ‘서구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서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관심이 ‘국수’ 및 ‘국

학' 주장으로 탄생하게 된 데는 서구에 의해 같은 시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머리속에 '문화'가 자리잡은 배경이 존재했다. 여기서 문화의 민족지(民族誌)적 성격이 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일부 특권 계층의 종적인 전승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라면, 이제 문화는 다수의 횡적인 공유물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흩어진 모래알'의 중국인들은 하나의 중국인으로 변신해야 했고, 또 하나의 중국(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인지 강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가 정리되고 창조되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에서 소위 '국학'의 탄생이다. 이처럼 국학의 탄생은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국학을 가장 먼저 제창한 이들이 바로 장타이엔(章太炎) 등의 혁명파 그룹이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아리프 딜릭은 국학이 민족의 독립과 근대국가의 탄생이란 정치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국학이 인식론적 토착주의(민족주의라는 표현보다 더 지역성과 향토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 말은 태생적으로 서구 근대적 삶의 방식의 보편주의적 주장에 의해 소거된 인식론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비서구권에서 국학이 논의되었지만, 근대 초기에는 이 보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지역주의적 표지라는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었다는 의미이다. 민족 정체성의 확보를 위해 전통(과거)이 발견되고 또 민족 만들기의 과정에서 발명되게 된 것이다. 즉 전통 자체가 근대성의 발명품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국학'은 바로 '전통을 발명하는 학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sup>

1990년대 후반 '국학'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의 연구자들은 학문 영역으로서 국학의 해석은 두 가지 패러다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sup> 그것은 바로 토착주의와 세계주의 패러다임이다. 다시 말해 근대 백여년의 역사에서 국학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반복해서 이 두 패러다임으로 작동해왔다는

1) Arif Dirlik, "Guoxue/National Learning in the Age of Global Modernity," *China Perspective*, vol. 2011, iss. 1, (한글판) 아리프 딜릭 저, 박은석 역 「전지구적 근대성 시대의 국학」, 『중국현대문화』 제61호, 2012.

2) 程鋼 曹莉, 「文化民族主義與文化世界主義」, 『全球化與後殖民批評』(王寧·薛曉源 主編), 中央編譯出版社, 1998.

말이다. 토착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패러다임은 장타이옌으로 대표되는 만청과 공화정부 초기의 학문이고, 후자는 오사신문화운동의 산물로서 후스(胡適)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후자는 종래의 학술사 연구에서 ‘국고정리운동(國故整理運動)’으로 불리는 것이다. 토착주의는 장타이옌의 경우를 빌려 말한다면, 국학을 중국의 정수 내지 민족의 특성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국학은 민족 정체성의 중심터전과 그것을 분석할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세계주의 패러다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구 근대적인 조사 및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민족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으로서의 국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국학의 두 개의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근대 초기 혁명파 그룹과 신문화운동시기 국고정리파의 국학에 대한 입장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것의 인문네트워크적 계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 Ⅲ. 국학 형성에 나타난 인문네트워크적 계기 1-일본의 동양학

전지구적으로 ‘근대지(近代知)’가 확장되고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서구권의 대응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다양한 근대개념 가운데 국학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당연히 내셔널리즘이 거론된다. 내셔널리즘 개념은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의 형성과 관련한 사상운동으로서 널리 인식되었다. 중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의식하고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란 목표를 뚜렷이 세운 이들은 청말의 변법파와 혁명파 그룹이었다. 그 이전 아편전쟁을 통해 서구의 세력을 접한 청왕조지만, 이 시기의 청황실은 여전히 외적인 서구의 침략조차도 늘 역사적으로 있었던 동란의 하나로 간주했고, 이는 내적인 혼란과 함께 단지 청왕조의 정책적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청황실은 왕조를 구하기 위해 1860년대 ‘동치중흥(同治中興)’을 단행하였다. 미국의 일본사학자 해리 하루투니언이 일본근대사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

국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며 이들은 인간적 질서의 재건을 요구하는 노력이란 면에서 ‘중흥’이란 개념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청(淸)관료 장지동(張之洞) 등의 양무파들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치중흥의 전개를 도왔다. 장지동이 발표한 『권학편(勸學篇)』(1898)은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서학(西學)의 수용을 권장한 글이다. 물론 여기서 요체는 당연히 중학(中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장지동이 이 글에서 언급한 중학은 대체로 경학(經學)에 해당했다. 다시 말해 동치중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학문적 방법론은 결국 중학 즉 경학이었던 것이며, 서학은 이 중학의 부차적인 학문일 뿐이었다. ‘중체서용’란 용어로 설명한다면, 중학은 정신과 관련되고 서학은 도구적 학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서학’과 대비하여 ‘중학’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 청조의 개혁운동에서였다.

그리고 이때 중학은 점차 서학과 마주하면서 자신을 대상화하고 그 역사를 재검증하며, 자신의 학문영역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면서 서학과 대치했다. 이 가운데 중학과 서학을 모두 시야에 넣고 새로운 대상과 방법을 지닌 학문의 구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는데, Kang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탄쓰통(譚嗣同) 등의 소위 변법파가 그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을 신학자(新學家)라고 불렀다.<sup>3)</sup> 바로 이들에 의해 청말 학술계는 중학과 서학이란 대립적인 구도에서 신학(新學)과 구학(舊學)으로 전환하게 된다. Kang유웨이가 중학의 근본을 이루는 경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필두로 모든 고서에 대한 새로운 점검을 요구하며 청말 사상계에 새로운(新)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특히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1897)를 써서 공자를 정치혁신의 아이콘으로 형상화했는데, 이러한 탁고개제(託故改制)의 방식은 유럽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비견되면서 복고에 의한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점차 시대가 종래의 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혁해나갈 것이 가치로서 제시되면서 서학은 중학과 대립하는 이질적인 학문으로서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주체적으로 선택되기 시작했다.

3)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 岩波書店, 2001, 240쪽.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학을 변화시켜서 중국의 변혁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문 즉 신학을 형성하기 위해 강유웨이나 량치차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소위 ‘학문적 기아상태’(아마무로, 249) 곧 정치변혁의 모범이 된 사회와 그것을 지지하는 새로운 학문 자원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양무운동 추진자들이 강조한 서학은 주로 군사적 실업을 위한 ‘서어(西語)와 서예(西藝)’에 중점을 둔 것이 라면, 청일전쟁이후 이러한 신학가들에게 서학은 변법과 국민교육을 위한 ‘서정(西政)과 서법(西法)’이 주안점이었는데, 이 분야의 책들은 당시 중국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법과 흥학양재(興學養才)를 외쳤던 량치차오 등은 일본의 교육개혁 등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책을 많이 번역할 것을 주장하였던 바, 번역기관으로서 량치차오가 상하이에 설립한 역서국(譯書局)이 역서관국(譯書官局)으로 바뀌어 출판물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또 신설된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에 편입되어 량치차오가 사무를 담당했던 일은 변법파들이 얼마나 서양 서적을 비롯한 외래의 지식 번역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중국에 서양의 지식을 제공해준 것은 우선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한역서(漢譯書)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 서적 한역본이었다. 특히 당시 변법파들의 신학에 대한 학문적 갈증을 일정하게 풀어준 것이 바로 일본이 유럽에서 수용하여 형성한 신학 즉 동학(東學)이었다. 당시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자연스럽게 메이지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고, 특히 강유웨이와 탄스통 등의 신학가들이 이에 관심을 기울게 된 것은 황준센(黃遵憲)의 『일본국지(日本國志)』(1889년 완성, 1898년에 주목)가 인쇄된 이후였다. 일본의 정치변화 등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정보를 전해줄 저작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책은 그 필요에 부합했던 것이다. 또 황준센은 1896년 상하이에서 『시무보(時務報)』를 창간하고 량치차오를 주필로 초대했는데, 이는 일본을 모범으로 삼는 황준센의 변법유신론이 량치차오에게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인 고쥬 데이키치(古城貞吉)가 일본의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시사신보(時事新報)』, 『도쿄경제잡지(東京經濟雜誌)』 등 일본의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나 논설을 번역해 실어서 메이지 일본의 정보가 거의 시차없이 중국에 소개되었

다.<sup>4)</sup>

이처럼 변법파들은 동학을 수용하면서 학문적 기아상태를 극복하고 국민국가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학을 외쳤는데, 이들은 구수(歐粹)와 동학 가운데 수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사회적 요청에 응해서 보다 적절한 사상으로써 제공하였다. 특히 량치차오는 이런 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의 저작은 조선에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널리 소개되었다. 량치차오는 일본 망명 3개월 뒤인 1898년 12월 23일 요코하마에서 『청의보(淸議報)』를 발간하면서 “우리 황색인종에 의해 20세기 아주(亞洲)의 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구미의 학술에 대항하여 동아시아 세계에 독자적인 학술을 창출하고 그 특질을 보존하는 것을 잡지의 목적의 하나로 삼았다. 실제로 그는 「청의보서례(淸議報敍例)」에서 4가지 종지(宗旨)를 제기했는데<sup>5)</sup> 그 마지막이 바로 “동아(東亞)의 학술을 발명하고 아수(亞粹)를 보존하자.” 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사실 량치차오는 아수 또는 동아의 학술의 발명에 열성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당시 중국의 개혁 즉 국민의 양성을 통한 국민국가의 수립이 지상의 과제였기 때문에 동아시아(학술)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이 일은 결국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지나학을 포함한 일본 동양학의 창출로 이어졌다. 서양의 시놀로지를 받아들여 성립된 일본의 지나학은 歐粹에 대항하는 亞粹를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학술의 성립을 표방하고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다. 1891년에 『진선미일본인(眞善美日本人)』을 발표하여 일본 동양학의 시작을 알린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는 한 국가의 직분을 운운하면서 아시아 연구야말로 진리추구의 영역이며 이것은 일본인의 임무라고 말했다.<sup>6)</sup> 미야케의 글을 읽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연구 범위를 넓힌 학자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이다.<sup>7)</sup> 이러한 일본의 동양학 연구에 대해 중국의 지식인들은 칭찬과 비난이 공존하였다. 량치차오도 그러했는데, 당시 「동적월단(東籍月旦),

4) 山室信一, 위의 책, 253-254쪽.

5) 종지의 네 가지는 넷째에 속하는 이 주장을 제외하고 차례로 첫째, 지나의 청의를 유지하고 국민의 정기를 격발한다. 둘째, 지나인의 학식을 증강한다. 셋째, 지나 일본양국의 聲氣를 교통하고 그 情誼를 연결한다.

6) 山室信一, 위의 책, 744쪽 주석 103 참조.

7) 일본 동양학의 형성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자세히 다루어볼 생각이다.

(1902)에서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隲藏)의 『중등동양사(中等東洋史)』에 대해 ‘조리가 정연하고 간결명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양사의 주인공으로 중국을 설정하여 중국을 동양사로서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 일본연구자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sup>8)</sup> 이후 량치차오는 『중국역사연구법』(1922)에서 “일본은 歐化에 의해 東學을 시작하여 개발받은 바가 많지만, -----시중에 떠도는 동양사와 지나사 등의 책은 대체로 조잡하고 지리멸렬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sup>9)</sup>고 통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일본의 중국 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지 여부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동양학이 일본정부의 대륙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학대사 장타이엔(章太炎) 역시 1930년대에 일본의 지나학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지만, 일본인 인류학자와 공동으로 아시아에 관한 학지(學知)의 진흥을 촉구하기도 했다.<sup>10)</sup>

일본의 동양학 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중국의 국학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으로, 이 짧은 논문에서 전부 다룰 수 없는 큰 문제인데, 여기서는 단지 근대 중국의 학술사에서 이처럼 동아시아의 인문네트워크적 계기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에 그쳐야 할 듯하다.

#### IV. 국학 형성에 나타난 인문네트워크적 계기 2-일본의 국수보존주의

청말 지식인들은 서구에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또 서구의 각 나라들이 부강한 국가가 되었던 것은 그 국민들에 대한 학습과 교육에 있었음을 목도하였다. 이 때 그 학습과 교육의 내용이 바로 ‘서학’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서학에는 근대지(近代知)로서의 보편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정신(학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8) 梁啓超, 『飲水室文集之四』, 82-102쪽.

9) 梁啓超, 『飲水室文集之六』, 2쪽.

10) 山室信一, 앞의 책, 444쪽.

‘문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국학(National Learning)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왕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적 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새로운 기초가 필요했다. 특히 이 정치적 구상의 밑그림은 외부에서 가져온 ‘민족’이란 새로운 개념적 존재로 향하고 있었고, 이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민족의 정수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청말의 지식인들은 한편으로는 장지동의 양무파로부터 시작된 서구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여전히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정수를 파악하기 위한 복고(復古)의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복고는 말 그대로 과거를 회복하려는 시도이지만, ‘중흥’이 그 성공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모든 역사적 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전혀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과거에서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청말 국학 주창자들의 고민이 된 것은 당연했다.

서구의 문물을 빨리 수용한 일본에서는 이미 메이지 초기에 ‘국수’라는 개념이 제창되어 민족적 정체성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이에 기반한 국민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미야케 세쓰레이는 동양학을 제창한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국수보존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었다. ‘동아의 학술을 발명하고, 이것으로 아수를 보존한다’(량치차오)는 것은 국가와 민족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장애로 인해 쉽게 전개되지 않았다. 곧 구미의 학술 침투에 대항하면서 국민국가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국 학술의 보존과 재편에 의한 고유성의 확인이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고유성의 강조는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으로 ‘국수’를 추구하게 했다. 이 국수는 일본에서 구화(歐化)주의의 정책과 사조에 대항해서 1888년 잡지 『일본인』에 시가 시게다카(志賀重昂)가 「국수보존지의(國粹保存旨義)」를 쓰고, 미야케 세쓰레이 등의 정교사(政教社) 동인이 창도한 것인데, 량치차오가 사용한 아수(亞粹)도 이 국수를 근거로 만들어진 용어였다.<sup>11)</sup>

이 국수 내지 내셔널리티의 발견과 확립을 추구하는 것은 민족의 일체성을 응집

---

11) 山室信一, 위의 책, 445쪽.

한 국민국가 자체의 성립속에 결합되었다. 그런데 이 국수의 내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아시아와 구미의 학술을 섭취해온 것을 일본 문화의 특질로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서 일본 고유의 것을 추출하는 데에는 딜레마가 있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무엇을 들더라도 경학(經學)이 고유한 것이며 서학과 대항할 수 있는 학술로서 조정(措定)되었다. 경학에 대한 조정 과정은 장지동이 국수의 발양으로 경학과 국문 등을 통해서 청조에 대한 충성의 조달을 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말의 국학과에 이르러 똑같이 “국수는 일국의 정신이 기탁하는 것이며, -----인심을 갈게 하는 것으로 실로 입국의 근본이자 원천이다. 이 때문에 국수가 있다면 그 나라는 존립하고 국수가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sup>12)</sup>라고 국수의 긴요성을 고취하면서도, 이민족으로서의 만주족과 한민족과의 민족적 차이나가 구미문명과 중화문명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한 학문적 추구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수에 새로운 학문적 근거를 부여했던 이들이 바로 소위 혁명과 그룹인 장타이엔, 류스페이(劉師培), 황제(黃節), 덩스(鄧實), 마쉬룬(馬敘倫) 등이었다.

1900년부터 다음해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황제가 “일본의 유신이 번으로 돌아가 막부를 전복하고(歸藩覆幕) 구화주의가 대단한 기세로 전국을 풍미할 때 미야케 시쓰레이, 시가 시게다카 등이 잡지를 만들어 국수보존을 제창하고 결국 일본주의가 성립되었다”<sup>13)</sup>라고 일본의 국수보존 주장을 소개하고,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1905년에 상하이에서 국학보존회를 조직하고, 『국수학보』을 발행했다. 류스페이는 유학을 군학(君學)으로 파악하고, 국학은 전제정치에 봉사해온 군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규범의 근간으로 생각되었던 삼강(三綱)을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이며 그 절대성을 박탈하고, 반(反)예교의 이학(異學)으로 간주된 이탁오의 사상도 민족의 학으로서 평가했다.<sup>14)</sup> 장타이엔은 『민보』에서 국수는 ‘보종(保種), 애국, 존학(存學)’이라고 하고, 학문적 주장 이상으로 국민국가의 형성을 기초로 하는 정신이 국수이며, 그것을 체계화한 학지(學知)가 국학이라고 주장했다.

곧 이들은 구미의 학문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또 토착적인 제도들을 민족주의 요

12) 許壽微, 「論國粹無阻於歐化」, 『國粹學報』 제7기, 1905년 7월, 社說 一丁.

13) 黃節, 「國粹學報敘」, 『國粹學報』 제1기, 1905년 1월, 三丁.

14) 羅志田, 『裂變中的傳承: 20世紀前期的中國文化與學術』, 中華書局, 2009.

구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유산이었던 실제 살아있는 중국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러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이들 앞에 상상된 고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었다. 즉 과거를 중국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는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역사를 거부하는 동시에 과거와의 일정한 연관을 여전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프 딜릭은 청말 시기라는 맥락에서 국학이 깊어진 두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왕조의 통치, 특히 기존의 왕조를 억누른 이민족 황제의 폭정 속에서 왜곡되었던 진실한 학문(즉 ‘민족의 정수’)을 구해내는 일이다. 둘째, 새로운 학문이 ‘서구’로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중국의 정수를 확실히 보존하려는 민족 학문의 도덕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일이다.<sup>15)</sup>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소위 혁명과 지식인들에 의해 중국의 국학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일본의 국수를 주창한 이들은 오히려 일본의 지나학(동양학) 연구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중국학(Chinese Studies)은 중국의 국학 그리고 서구의 시놀로지를 수용한 일본의 지나학이란 두 가지 학문이 양립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말 지식인 장타이옌은 일찍이 국수를 구체적으로 언어문자, 전장제도(典章制度), 인물사적(人物事蹟)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를 가리켰고, 이후 국수 보존은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국수보존의 핵심을 국학의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국수학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학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국학을 제창한 이들 가운데 덩스는 천하의 학술에는 군학(君學), 국학(國學), 군학(群學)이 있는데, 이 가운데 후자의 군학이 가장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삼은 반면,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오직 전자의 군학만이 성하고 국학이 쇠했기 때문에 당시의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국학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말한 국학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국학과는 다른 의미였다. 그는 국학을 재야(在野)의 학문으로서 간주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선진제자(先秦諸子)와 명말의 옹명반항파(擁明反抗派)의 사상을 들었다.<sup>16)</sup>

15) 이상은 아리프 딜릭, 앞의 글, 2012.

16) 吳忠良, 「鄧實史學思想新論」, 『東方論壇』, 2003年 2期.

딩스가 사용한 국학은 네이션 개념의 국학은 아니지만, 종래의 경학 중심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배제된 학문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상상된 고대로의 관심이 나타났다. 그것은 『국수학보』진영의 대다수가 공감했던 바로 선진시대에 대한 관심과 공자에 대한 재평가다. 특히 공자를 선진시대 제자의 일인으로 위치짓고, 당시 노자, 장자, 묵자 등 제자들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공을 들였다. 이와 같은 제자학 연구와 유교의 상대화는 국수학과와의 일치된 학술관이었는데, 자신들의 이런 시각에 근거를 제공한 것은 바로 “오늘날 유럽 문명은 중세기의 고학(古學)부흥의 제창에서 유래한다”<sup>17)</sup>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문예부흥이었다. 여기서 ‘고학’은 중국의 경우에는 공자를 포함한 선진의 제자학이었다. 아울러 이 제자들에 대한 해석에는 근대 서구의 사상과 이론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학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학통 즉 청대 고증학의 개조(開祖)인 고염무(顧炎武)에서 시작된 제자학 연구가 청대 중기의 대진(戴震) 등을 거쳐 청말의 유월(俞樾), 손이양(孫詒讓) 등에게로 계승된 것이었음도 특기해야 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타이옌이 제시한 국수의 내용 가운데 언어문자 역시 국수학과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실로 전인류의 문명사는 물론이고, 민족문화의 전유산은 모두 언어문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국수보존을 제창한 국수학과들이 언어문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 언어문자와 관련된 학문을 전통적으로 소학(小學)이라고 불렀는데, 소학은 원래 비(非)정치성과 비실용성을 그 특징으로 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청대 고증학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인 소학을 청말의 국수학과들이 계승하고 이를 혁명을 통한 국민국가수립이라는 정치적 활동과 연결시켰다. 넓게는 ‘학문을 위한 학문’ 그래서 ‘경세(經世)’의 관념이 결핍되었다는 지적을 받던 청대 고증학의 폐단을 장타이옌 등에 이르러 언어문자를 통해 민족주의(排滿革命)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 역시 서구 문화의 영향이었는데, 이들은 근대 서구 제국의 논리성과 대중성에 저항할 중국의 국어를 개조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소학

17) 許守微, 「論國粹無阻於歐化」, 1905.

의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조명하게 되었다.

특히 장타이옌과 류스페이는 완원(阮元)에 의해 개척된 언어문자를 통한 고대문화의 탐구라는 방법을 자신들의 정치사회사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즉 그들은 소학의 진가를 문자에 의한 사회학이라는 분야에서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밖에도 그들은 중국의 언어적 환경이 혼란함을 지적하고 서구 근대어의 창출이란 과정을 참고하여 근대 중국어의 탄생을 위해 노력했다. 류스페이의 언문일치 주장과 백화문의 창조 그리고 장타이옌의 방언의 통일과 민족 언어의 창출 등의 주장은 모두 전통 소학의 근대 언어학으로의 개조를 도모한 노력의 산물이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국어개혁론은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한 백화문(俗語)과 자신들이 보존해 나가야 할 고문(古文)을 분리시킴으로서 그들의 개혁안을 더 이상 구체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의 한 요소로서 언어에 착안한 점과, 그것의 개조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혁명을 통한 근대적 국가의 수립이란 목표를 위해 노력한 점은 신해혁명이후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국수학파들의 국학관련 주장에서 또 강조해야 할 것은 앞의 제자학이든 언어문자론이든 국수학파들은 모두 이를 역사라고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은 “중국 고대에 사(史)외에 따로 학(學)이란 존재하지 않았다”<sup>18)</sup>, “역사란 일대 성쇠의 계열이며, 일대 학술의 총결”<sup>19)</sup> 등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역사를 모든 인류 지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와 같이 역사를 중시하는 전통은 고대 중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역사는 강렬한 윤리의식과 경세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국수학파의 역사에 대한 중시 역시 바로 이러한 의식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래서 장타이옌은 “민족의 독립은 먼저 국수를 연구하는 것이 주(主)이며, 국수는 역사가 주(主)이다. 그 밖의 학술은 모두 보통의 기(技)에 불과하다”<sup>20)</sup>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국수학파들은 전통적 사학편찬 방법(즉 王朝斷代分期法)을 비판하고, 서양의 근대적인 역사서술 방법을 도입하여 인민

18)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 1922.

19) 劉師培, 「論古學出於官守論」, 1905.

20) 章太炎, 「印度人之論國粹」, 1908.



의 역사(民史)를 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 국수학파들은 과거 역대 한 왕조의 역사로서 취급되고 있던 역사를 한민족의 총사로서 개관하려고 했고, 그 결실중의 하나가 바로 황제(黃節)가 『국수학보』에 연재한 『황사(黃史)』였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 서술은 서구의 사회학을 접목시키고 게다가 고증학에 의해 경학의 정치성이 약화되었던 배경 하에서 나온 ‘육경은 모두 역사라는 설(六經皆史說)’을 주장하여 전통적으로 경학의 부수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학의 지위를 고양시켰다.<sup>21)</sup>

이상 청말 국수학파들의 국학에 대한 주장을 통해 우리는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요소가 이미 구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국학의 내용인 국어, 국사,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그것인데, 국수학파들이 강조한 제자학, 언어문자, 역사는 바로 이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국민국가의 수립 이전 그것을 향한 혁명의 과정에서 전개되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인 실천은 결국 신해혁명이후로 넘어가게 되고, 특히 오사신문화운동 시기에 비로소 제도화와 함께 구체화된다. 1920년대 제도화된 국학의 등장과 비교하면, 청말 국수학파의 국학은 특히 장타이엔이 중심이 되어 많은 강학을 통한 제자 양성의 과정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운동으로서의 국학 즉 사학(私學)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정계에서 은퇴하고 1920년대 이후 1936년 죽을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국학 관련 강학을 했던 장타이엔의 활동은 이런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것이다.

## V. 1920년대 중국의 국고보존운동

중국문학가 루쉰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청조 말년에 이런 말(곧 국수보존)을 하는 사람은 대개 두 부류였다. 하나는 애국지사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을 다녀온 고관들이었다. 이런 구호의 배후에 그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숨기고 있다. 지사들이 말

21) 이상 국수학파의 국학 주장과 관련한 정리는 천성림, 「국학과 혁명: 청말 국수학파의 전통학술관」, 『진단학보』 88호, 1999.

하는 국수보존은 옛것을 되찾자는 뜻이었고, 고관들이 말하는 국수보존은 유학생이 변발을 자르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뜻이었다.”<sup>22)</sup> 이 말은 한민족에 의한 종족혁명과 변발에 의한 만주족에 대한 충성이라는 정반대의 지향성이 동일한 국수보존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국수라는 언설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중화민국이 된 뒤에도 국수보존이 주장되는 것에 대해서 루쉰은 같은 글에서 “무엇을 국수라고 하는가? 문면으로 보면 한 나라의 고유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사물이다. 달리 말하면 특별한 물건이다. 하지만 특별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닐진대, 왜 보존해야 하는가? -----내 생각에는 이 ‘정수’를 제거하여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sup>23)</sup> 루쉰의 이 주장은 국수라는 고유화가 배외적 정치언설로서 국민을 자폐화시키는 것에 대한 경계를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수에 대한 지향을 일거에 부정해버릴 수 없는 것이 장타이엔의 생각이었다. 곧 역사적 단계와 사회적 상황에 응한 국수언설의 존재양식을 말하고 있다. 국수라는 언설은 그것이 자기존재의 상황적 인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입장에 의해 크게 내실이 달라지는 논쟁적 개념에 다름 아니다. 다만 어떻게 입장에 의해 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국문화와 국민성의 고유성에는 루쉰이 지적했던 것처럼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국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수의 양면성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일컫는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1920년을 전후하여 다시 과거가 환원되었다.

신해혁명의 실패는 급진적인 지식청년들에게 과거를 다시 묻게 만들었다. 그래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제창하는 그룹이 등장하는가 하면, 세계사적 흐름에 비추어 중국의 고유한 과거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었다. 오사신문화운동으로 대변되는 시기 몇 년간 과거에 대한 이 대립적인 두 가지 입장은 전면적으로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름하여 ‘동서문화논전(東西文化論戰)’이다. 하지만 이 두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그룹들 가운데 신문화운동시기 반(反)전통을 외친 급진주의자들조차도 사실 국학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서구적 학문방법을 통해 과거를 정리한다는 원칙하에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국학연구를 전개하였다. 즉 과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지적인 국민들로 구성된 민족의 설립에 필수

22) 루쉰, 『열풍』(루쉰문고 2권), 그린비, 2011, 29쪽.

23) 루쉰, 앞의 책, 30쪽.

적이었고, 그들의 세계주의는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견고한 근대적 토대를 바탕으로 그것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1920년대 근대적 대학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던 베이징(北京)대학의 국학문(國學門)이란 연구소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국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이 바로 후스(胡適) 등을 중심으로 한 국고정리 그룹이다.

1916년 12월 차이위안페이(蔡元培)가 베이징대학 총장으로 취임하고, 다음해에는 상하이(上海)에서 진보적인 잡지 『신청년』을 발간하던 천두슈(陳獨秀)가 베이징대학 문과대학장으로 임용되고, 이어서 후스가 문과대학 교수가 됨으로서 베이징대학은 이제 서구의 ‘민주’와 ‘과학’을 제창하고 민주정신과 과학적 방법으로 중국의 전통을 비판하는 의식운동을 전개한 『신청년』의 근거지가 된다. 흥미롭게도 철저한 반(反)전통을 외치고 ‘타도공자(打倒孔家店)’를 제창한 신문화운동기간에 국학연구의 불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차이위안페이가 베이징대학 내에 설립한 국학문 연구소가 계기가 되었다. 차이위안페이는 1918년 『베이징대학(北京大學)』(월간) 발간사에서 “연구란 한갓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구 속에서 더욱 진일보한 발명이 되어야 하며, 한갓 국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수의 진상을 드러내야 한다.”<sup>24)</sup>라고 강조했다. 즉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수의 진상을 드러낸다는 차이위안페이의 이러한 주장은 바로 국학문의 ‘국고정리(國故整理)’ 구호가 되었다.

1922년 1월 정식으로 발족한 베이징대 국학문연구소에는 차이위안페이가 소장을 맡고, 후스, 저우쥘런(周作人), 루쉰(魯迅), 첸쉬안통(錢玄同), 리다자오(李大釗), 주시쭈(朱希祖) 등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뛰어난 지식인들이(장타이엔의 제자들까지 포함) 많이 가담하였다. 이 연구소는 1923년 1월에 『국학계간(國學季刊)』을 발간함으로써 국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후스가 쓴 『『국학계간』발간선언』에서 국학연구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의 모든 과거의 문화와 역사는 모두 우리의 ‘국고’이다. 이 과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국고학’이고 줄여서 ‘국학’이라고 부른다.

24) 蔡元培, 『蔡元培文选』, 百花文艺出版社, 2006.

‘국고’라는 이 명사가 가장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립적인 명사로서 포괄의 의미를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고’는 ‘나라의 정수(國粹)’를 포함하며 동시에 ‘나라의 찌꺼기(國渣)’도 포함한다.”<sup>25)</sup> 신문화운동의 타격으로 전반적으로 힘이 떨어진 국학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국학이란 이름 대신에 ‘국고학’이란 명칭을 제안했다. 이 국고정리운동은 과학적 방법으로 국고를 정리함으로써 과학적 기초위에 새로운 문명을 재건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문명의 재건은 전통을 새롭게 이해하여 중화민족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의미였고, 그로 인해 학술연구의 혁신은 오사신문화운동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다.

후스는 중국의 전통과 현재를 단절이 아닌 계승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구문화전통 가운데 근대적인 과학적 방법의 요소를 찾아내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 청대의 박학(樸學)이 과학적 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서양근대의 과학적 방법과 청대 고증학의 연구방법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한 것이다. 후스 등 국학문 동인들이 청인(淸人)들의 교감, 음운 등의 연구를 ‘체계적이고 가치 있는 과학’이라고 평가한 점은 과학을 중시하던 당시 국학연구의 학자들에게 커다란 진작은 물론 국고연구의 지위를 한층 높여주었다. 나아가 건가(乾嘉) 한학(漢學)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초 위에 구미의 현대학술방법을 흡수하여 시야를 넓히고 규범을 세워 ‘신(新)국학’을 창조하려 하였다. 그러나 청인(淸人)들의 학문이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고서에 대한 교감·훈고·음운 연구를 고증과 논증을 통해 진행했다는 데 국한되었다. 연구 범위와 방법이 협소하여 주로 문헌에 한정되었고 그것도 경서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참고와 비교의 자료도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었다. 이것은 장타이엔 등 국수학파의 국학연구 역시 필로로지예 국한되었던 점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된다.

이에 후스는 국고정리의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첫째, 역사적 안목으로 국학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국학연구의 자료를 근대적 학술분류에 의거하여 재배치하며, 셋째는 참고와 비

25) 胡適, 『胡適文選』, 遠東圖書公司, 2000.

교자료를 해외로부터 널리 수집하여 국학연구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역사적 태도는 사물의 발생, 발전과 원인에 대한 탐구 즉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국학연구를 쇄신하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과거의 역사화는 과거의 모든 문화와 역사가 연구대상으로 재인식됨으로서 과거 학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진화론적 역사관이 투여되었다. 체계적인 정리에는 세 가지 방식 즉 1) 색인식 정리 2) 결산식 정리 3) 전사(專史)식 정리를 들었다. 1)이 중국의 방대한 문헌을 검색하기 쉽도록 색인화하는 작업이라면 2)는 이전의 성과를 모아 정리하는 것으로 주석의 정리 혹은 본문에 대한 교감 등의 작업이다. 3)은 각 전공별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민족사, 언어문자사, 경제사, 정치사, 국제교통사, 사상학술사, 종교사, 문예사, 풍속사, 제도사 등의 편찬을 계획했다. 최종적으로 ‘중국문화사’ 편찬이라는 목표를 위해 먼저 각 전공학문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체계적이지 못한 중국전통의 학술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결국 중국의 근대적인 학술 및 교육제도의 수립과 병행하여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특히 베이징대학 등의 근대적 분과학문의 수립과 연동된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국학이란 범주가 청말에서 오사를 거쳐 점차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장타이엔 등의 『국수학보』그룹이 제기한 국학과, 후스 등의 국고정리파가 주장한 국학의 범주가 달라지며 동시에 오사 이후 국학의 내용도 변화한다는 말이다. 마지막 3)은 구미와 일본학술계의 우수한 성과를 가져와 참고로 삼을 것을 주장한 것인데, 특히 해외 한학계(漢學界)와의 교류를 중시한 것을 보면, 세계적인 중국학의 중심지가 될 목표를 설정했음도 살필 수 있다.<sup>26)</sup> 게다가 국학문은 연구소로서 대학의 학과분류와 달리 연구내용에 따른 학문분류를 행했는데, 이에 국학문 안에 문자학·문학·철학·사학·고고학 5개 연구실을 두고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면서 고고(考古)·가요·풍속조사·방언조사·명청당안(明清檔案)정리 등의 연구팀을 개설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구(新舊)와 중서(中西)의 학술관념이 뒤섞여 있었던 청말민초(清末民初) 시기의 학술체계

26) 이상은 김소정, 「청말민초 교육개혁과 문학연구의 흥기: 베이징대학을 일례로」, 『중국어문논총』 제42집, 2009.

가 점차 전통적 사부(四部)학문의 체계는 와해되고, 대신 서양의 근대 학술분류를 수용하여 전통 학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형태로 학술체계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학술평등관념과 분과학문체계가 형성되었다. 즉 중국의 전통학문 체계의 해체와 근대적 학술분과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大)전통을 전복시키고 소(小)전통을 복원시키는 것이었다. 문학과가 등장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의 정리에서 보았듯이, 후스 등 국학문 동인들은 신문화운동의 지도적 인물로서 국고정리의 기치를 내걸고서 ‘오래된 낡은 종이 더미’에 ‘새로운 과학적 방법’<sup>27)</sup>을 운용하는 학문연구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들의 구상에 따르면, 국고정리란 산견되어 있거나 뒤섞여있는 국고를 하나의 맥락을 잡아 그 학술적 연원을 정리하는 것이며,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한 고증을 통해 그것의 진정한 학술적 의미를 돌려놓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고정리의 결과 후스의 『중국철학사대강』(1919), 평유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1934)가 출판되었고, 장타이엔의 국학강습회에 참여한 구제강(顧頌剛)도 베이징대학에서 가요 수집이 학문으로서 수립되어가는 과정에 기여하고, 스스로 방언과 민간 가요를 수집하고 민간전승을 채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공부한 첸쉬안통(錢玄同) 등과 의고파(擬古派)의 방법론을 확립했다. 이처럼 국고학(국학)이라는 개념과 연구는 이후 중국의 민족학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중국 국학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시다 미키노스케(石田幹之助) 등에 의해 일본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일본으로 다시 환류하는 사상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국수운동은 일본주의를 거치고 극단적인 배외주의와 폭력주의의 대명사로 되었다가 1935년 국체명징운동을 통해 군주와 왕조의 정수를 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민족과 국민의 정수를 밝히는 것이 국수보존의 과제라고 한 중국과 조선의 국수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27) 후스 등은 국학연구의 과학적 방법으로 1) 가치중립적인 국고 정리의 태도 2) 체계적으로 국학 연구 자료를 배치한다. 3) 널리 비교연구를 행한다 4) 의고(擬古)의 태도를 제시했다.

##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학운동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국학운동 역시 정치사회의 변혁, 자기확립과 학문의 재편성이란 과정에서 탄생된 것으로, 타국과 타민족에는 없다고 외치는 고유문화 역시 부단한 이문화 교류와 그것에 의한 마찰의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며, 결코 고립된 진공의 공간속에서 탄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근대 이후 중국의 국학은 경학을 모태로 하는 중학에서 출발하여 서학과 대립관계를 이루다가 점차 서학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서학을 통한 중학의 수정이 요구되고 나아가 중학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신학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서학과 동학의 주체적 수용에 의한 변법파의 신학이 중국의 국민국가 수립이라는 과제에 학문적 바탕이 되었던 반면에 종족혁명과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혁명파는 국수를 제기하면서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면서 국학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근대 중국의 학술사를 개관하다보니 그 속에 서학과 동학으로 대변되는 외부 학문과의 네트워크적 계기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국수보존운동 그리고 서구의 시놀로지를 받아들인 일본의 동양학이 중국의 국학운동에 끼친 영향이다. 때문에 국학이 자기특유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해도 상호 관련된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의론 자체가 사상 연쇄에 의한 유동화(類同化, 山室信一의 용어)로서 드러난 것도 그러한 간단없는 교류에 의해 문화가 형성되어가는 역사과정의 예증에 다름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근대란 바로 학문의 정치화의 양진(昂進)이라는 사태에 의해 채색된다.

## 〈참고문헌〉

### 연구논문

Arif Dirlik, "Guoxue/National Learning in the Age of Global Modernity," *China*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8. 05. 31)

*Perspective*, vol. 2011, iss. 1.

아리프 딜릭 저, 박은석 역 「전지구적 근대성 시대의 국학」, 『중국현대문학』 제61호, 2012.

程鋼 曹莉, 「文化民族主義與文化世界主義」, 『全球化與後殖民批評』(王寧·薛曉源主編), 中央編譯出版社, 1998.

吳忠良, 「鄧實史學思想新論」, 『東方論壇』, 2003年 2期.

천성림, 「국학과 혁명: 청말 국수학파의 전통학술관」, 『진단학보』 제88호, 1999.

김소정, 「청말민초 교육개혁과 문학연구의 흥기: 베이징대학을 일례로」, 『중국어문논총』 제42집, 2009.

#### 단행본

陳書良 編, 『梁啓超文集』, 北京燕山出版社, 1997.

姜玢 編, 『章太炎文選』, 上海遠東出版社, 1996.

欧阳哲生 編, 『胡適文集』12卷, 北京大學出版社, 2013.

루싌번역위원회 편, 『루싌전집』20권, 그린비, 2018.

蔡元培, 『蔡元培文选』, 百花文艺出版社, 2006.

胡適, 『胡適文選』, 遠東圖書公司, 2000.

羅志田, 『裂變中的傳承: 20世紀前期的中國文化與學術』, 中華書局, 2009.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 岩波書店, 2001.



<Abstract>

## Humanities Network in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Chinese studies as National Learning

Seo Kwangdeok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na has become a subject of study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knowledge, and how Chinese people tried to identify themselves academically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Learning'. In the analysis of 'national learning' in the late 1990s, Chinese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national learning as a field of study was formed by the dynamic interaction of two paradigms. It is a paradigm of indigenism and worldism. In other words, scholarly discussions related to national learning in the history of the past hundred years have repeatedly worked with these two paradigms. The first paradigm that can be called indigenism is the study of the last period of Qing Dynasty and the Early of Republican governments, which are represented by Zhang Taiyan, and the latter is the product of the 54 New cultural Movement, which are represented by Hu Shi. In particular, we paid attention to how the human network in Northeast Asia worked in the process of forming this 'National Learning'. In China, 'National Learning' was recognized as a basic science for the formation of a modern nation state and as a study of the response to Western Stud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awareness, modern Chinese intellectuals was influenced by the essence of national culture Conservationism of Meiji Japan, and accepted the achievements of Japanese Oriental Studies in actual research.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Chinese 'National Learning' was established by making a relationship with the Japanese Chinese Studies(支那學). In this sense, the 'National Learning', which pursues only the unique aspects of the country, is in fact a movement, but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not born in a closed space.

**Keywords** : National Learning, Sinology, Hu Shu, Zhang TaiYan, Liang QiChao, Confucianism, Japanese Oriental Studies, Lu Xun, Human Network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8. 05. 31)

논문접수일 : 2018년 05월 01일  
심사(수정)일 : 2018년 05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21일